건너가는 사람들

강 령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의 담대한 건너가기

전문

대한민국은 지금 추격국가의 한계를 딛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낡은 관성에 갇혀 쇠락할 것인가를 가르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한때 유효했던 성공의 덫과 과거의 영광을 과감히 떨쳐내고, 스스로 생각하고 담대히 질문하는 주체적 개인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자 한다.

정치가 시장을 억압하고, 소모적인 진영 갈등이 창의와 자율을 가로막으며, 헌정 질서와 공정한 제도가 훼손되는 현실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활력은 멈춰 서 있다. 이에 '건너가는 사람들'은 퇴행적 관성과 적대적 공존의 정치를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기초 위에 자율과 창의, 공정이 살아 숨 쉬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의 담대한 건너가기'를 선언하며 다음의 강령을 채택한다.

제1장. 사유와 교육 — 대답하는 교육에서 질문하는 교육으로의 전환

■ 생각하는 국가와 지식 생산국의 실현

남이 낸 생각의 결과를 수용하던 추격국가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생각하는 국가', '지식 생산 선도국가'로 건너간다.

■ AI 시대 맞춤형 창의·질문 교육 혁신

과거의 획일적·폐쇄적 이념 교육을 종식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여 비판적 사고와 질문 역량을 극대화하는 열린 미래 교육 체제로 건너간다.

■ 지·덕·체가 조화로운 '품격 있는 문화 사회' 조성

일상 속 독서와 체육 활동을 장려하여 시민 개개인의 지적 역량과 건강권을 높이고,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품격 있는 문화 강국으로 건너간다.

제2장. 경제와 과학기술 — 시장 자율과 창의가 주도하는 혁신국가

■ 시장 자율성 보장과 기업가 정신 존중

정치가 기업과 시장을 수단화하고 규제로 억압하는 관치경제를 타파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온전히 보장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건너간다.

■ 원천 창의 중심의 과학기술 선도

단순한 기술 수용 및 모방 단계를 넘어, 기초과학과 원천 기술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여 세계 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과학기술 창의 국가'로 건너간다.

■ 과거 저항에서 미래 생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과거 지향적인 투쟁과 규제 중심의 사회 분위기를 걷어내고, 부가가치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미래형 생산 사회'로 건너간다.

제3장. 자유와 헌정 질서 —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

■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수호와 전체주의 배격

전체주의적·독재적 퇴행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헌법적 가치와 개인의 천부적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너간다.

■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수호' 역사관 정립

6·25전쟁을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자유수호전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헌정사적 정통성과 국가 안보 역량을 공고히 다진다.

■ 표현의 자유 완전 보장과 사상의 시장 복원

정치적·이념적 이유로 특정 견해를 처벌하고 입을 막는 모든 입법적 과잉 규제를 폐지하여, 헌법상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사회로 건너간다.

■ 삼권분립 확립과 사법·입법 독립성 수호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정상화하여 특정 권력에 의한 사법·행정 마비를 막고, 엄정한 법치주의를 수호한다.

제4장. 정치와 선거개혁 — 공정 선거와 다원적 민주주의 구현

■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 보장

국민 주권의 근간인 참정권을 빈틈없이 수호하기 위해 선거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과 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정 선거 제도를 확립한다.

■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정치적 다양성 확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과 사표(死票)를 양산하는 승자 독식형 소선거구제를 개혁하고, 청년·전문가 등 다양한 세력의 정치 진입을 넓히는 중대선거구제로 건너간다.

■ 시민 자치 실현과 '문제해결 중심의 정치' 구현

정치권의 기득권 방탄과 진영 대립을 타파하고, 오직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적 미래 과제 해결에 집중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정치를 구현한다.
